

1. 연구소 동정

■ 지역 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MOU 체결



본 CCRSP 연구소는 4월23일에 옥수사회 종합복지관(성동구)과, 5월21일에는 서울시 성동구청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연구를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성동구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비핵심 지역으로, 선도사업 해당 지역과의 상호정보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국대학교 전공교육과정과 대학원 박사 과정 내 지역사회학 트랙 개발

본 CCRSP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와 협력하여 전공교육과정 내 지역사회학 전문가 과정을 공동개발·시범운영한다. 전공인증제도란 정해진 교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하면, 해당하는 트랙의 전문가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명시해주는 제도이다. 전공인증제도는 총 네 가지 트랙(사회조사전문가, 저출산·고령화 전문가, 다문화전문가, 지역사회전문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인증을 통해 세분화된 전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내 지역사회학 전공 공동개발에도 참여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 세부전공으로 지역사회학이 신설되었다. 최근 국내·외에서 지역사회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지역사회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본 연구소와 동국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는 지역사회학 전공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되고, 민·관·학 협력 체계를 통한 지역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2. 학술 활동

■ 주요 학술지 논문 게재(2020.03~05)

이태현, 홍순구, 정하영. 2020. “패싯분석을 활용한 지방의회 공적토론에 대한 자동분석 방법의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1호: 47-68

본 연구의 목적은 패싯분석(face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부산진구의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발언목적, 논증성격,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제7대 부산진구 기초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115,017건)을 발언목적, 논증성격, 갈등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패싯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LSTM(Long Short Term Memory)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언의 48%가 사회적 기능으로 정책의 사회적 기능을 행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측정 불가능한 증거기반(24%) 발언이 측정 가능한 증거기반 발언(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갈등을 나타내는 발언은 규칙에 관한 논쟁이 23%, 원리적인 논쟁이 4%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중요문제 측정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역사회담론 형성의 중요과정인 원리적 논쟁의 부족은 의회의 담론형성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회와 시민사회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의회참여자가 논의과정의 파악을 수월하게 패싯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공적토론의 질적 속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천희란, 이주열. 2020. “고령자의 헬스리터러시 관련 요인 : HLS-EU-Q16 측정 도구 활용”.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7권 1호: 1-13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and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among older adults in Seoul, using the European Health Literacy Survey Q16(HLS-EU-Q16) measure. **Methods:** Data were drawn from a cross-sectional study conducted in Seoul of older residents, aged 60~79. A total of 302 elderly were recruited according to gender, age, and geography. Health literacy was assessed using the short version of the HLS-EU-Q16. The comprehensive health literacy measure consists of three domains: health care, diseases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For explanatory variables, demographic(gender, age, marital status), socioeconomic(education level, subjective economic status,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and health-related factors (self-rated health,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medical check-ups) were consider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identify variables associated with health literacy. **Results:** The mean score of health literacy was 11.4±3.7.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found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health literacy and education, subjective economic status(higher), number of chronic diseases(over 3), and medical check-up(additional). Associated factors differed by domain-specific health literacy. **Conclusion:**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elderl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vulnerable groups in regarding health literacy. The results call for further studies with utilizing longitudinal design and diverse measures.

Key words: health literacy, elderly, health promotion, HLS-EU-Q16

신유리, 김정석, 문경주. 2020.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건강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7권 1호: 1-13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참여의 직접효과와 사회적 관계 및 주관적 건강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제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55세 이상 75세 미만 990명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경제적 사회참여와 경제적 사회참여 모두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건강 모두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간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간접효과분석에서 비경제적 사회참여와 경제적 사회참여 모두 사회적 관계보다 주관적 건강을 매개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근거로 중고령층 대상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와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사회적 소통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마을만들기운동 등 중고령층의 활동적인 노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중고령층, 사회참여,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주관적

■ Working Paper(3월 1일~5월 31일)

· NO. 2020-K006. 김미선, 신유리, 김정석. 2020.03.29. “장애인의 결혼이행: 장애유형 및 남녀차이”.

3. 콜로키움 알림

■ 콜로키움 개최 안내(2020.06~08)

제9차 콜로키움/ 2020.06.15(예정)/주요 국가의 지역사회통합돌봄(1): 일본/호주/덴마크 사례 고찰

- 발제자: 이태현, 신유리, 문경주, 장수지, 천희란
- 내용:
 - ① 일본, 호주, 덴마크 지역사회통합돌봄 개요
 - ② 일본, 호주, 덴마크 「통합 및 연계」의 현황과 전망
 - ③ 한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합의
- 추천도서: 니키류, 2018,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무토 마사키, 2018, 『커뮤니티 케어: 일본의 의료와 간호』
- 참고자료: CCRPS 정책자료집,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론 및 정책 이해』

제10차 콜로키움/ 2020.07.20(예정)/주요 국가의 지역사회통합돌봄(2): 대만/싱가폴 사례 고찰

- 발제자: 김정석, 김일호, 홍송이
- 내용:
 - ① 대만, 싱가포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개요
 - ② 대만, 싱가포르의 「통합 및 연계」의 현황과 전망
 - ③ 한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합의
- 추천도서: 서울연구원, 2018,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정립 및 추진방향 연구』
- 참고자료: CCRPS 정책자료집,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론 및 정책 이해』

제11차 콜로키움/ 2020.08.19(예정)/1차년도 연구성과 종합점검 및 2차년도 세부 계획 수립

- 발제자: 김정석, 문경주, 이태현, 김일호, 홍송이
- 내용:
 - ① 1차년도 연구평가 및 진행과정 종합점검
 -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 2차년도 세부 연구계획 수립
 - ③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대학의 역할 논의
- 추천도서: Eoloise H.P. Killeffer et al, 1990, 『Successful Models of Community Long 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 지난 콜로키움 주제(2020.03~05)

제6차 콜로키움(2020.03.27)

-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제언(1) - 서비스내용 및 욕구 통합

제7차 콜로키움(2020.04.24)

-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제언(2) - 지원주체(민/관/협력) 간 연계 방안

제8차 콜로키움(2020.05.11)

-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제언(3) - 대상(노인/장애인) 간 통합

4. 연구소 알림

■ 축하해주세요!

김정석 연구소장이 5월 7일 동국대학교 개교 114주년 기념 동국우수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소의 공동연구원인 천희란 교수가 2020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계획(HP2030) 수립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성생식보건(SRHR)의 포럼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연구위원인 기명 교수는 2020년 자살예방협회의 정책위원장에 위촉되었다.



■ 천희란 공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성·재생산 건강리터러시 활용" 선정 및 수행

본 연구소의 천희란 공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 지역우수과학자 분야에 선정되었다. 연구과제 제목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성·재생산 건강리터러시 활용"이며, 5년간(2020.06~2025.05) 2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다.

■ 김정석 연구소장, 동국대학교 SS급 교원 특별연구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SS급 교원 특별연구사업에 본 연구소(김정석 연구소장)가 선정되었다. 주제는 "불교계 승려들의 노후생활보장 현황과 과제"이며, 연구 기간은 2020.05.01.~2021.04.31.(1년), 지원 금액은 20,000,000원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노년기 승려의 노년 생활 실태 파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연구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대응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정착화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안내

본 연구소는 6월 부산 북구와 부산진구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정착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북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 각각 6월 8일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포럼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 관심 유도에 있다.